

광주비엔날레관 신축에 대한 제안

기고

배동환

前광주미술상 이사장
전신라대학 교수



침체의 기로에 놓인 광주비엔날레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더욱이나 비엔날레 본 전시관의 신축에 관한 논의는 반가운 일이며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다.

유럽의 각종 비엔날레의 대표적인 미술 행사는 단연 베니스 비엔날레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5년 만에 열리는 (독일) 카셀 도큐멘타와 10년 만에 열리는 (독일) 문스터 환경전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항상 그 중심엔 베니스 비엔날레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유는 역사적인 전시 공간의 참신함이라 할 수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2개의 메인관 즉, '자르디니'라는 숲속의 정원 속에 만든 국가관과 '아르세날'이라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전투기를 생산하던 긴 격납고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보전이 잘 이루어진 정원 국가관보다, 파격적으로 붉은 벽돌 창고 전시관 매력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세계 최고의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낡은 것을 새로 짓는다고 무조건 개발이 아니다. 때로는 과거의 유산을 소중하게 보전하여 지난 역사를 새롭게 되살려내는 일이 숙고하지 않은 개발보다 훨씬 낫다.

베니스비엔날레 예저럼 오랜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시 공간을 배경으로 리모델링한 전시공간들은 세계 어느 현대 미술관 공간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다. 전쟁의 상처로 심하게 파손된 부분들의 수리 역시 엄정한 역사적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건물을 홍보하고 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추세는 전 지구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문스터 환경전에서 문스터 구시청 청사 앞에 백남준의 20여대의 폭스바겐 설치물은 카프카의 성을 연상하게 하며 당시 절대 권력의 몰락을 예감하는 듯한 생생한 기억을 남겼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적인 두 개의 성 (프랑스의 아트클렉트 프랑수아 피노의 소유, palazzo grassi punta della dogana)에서 열린 데미안 허스트 전 역시 비엔날레 메인관 전시를 압도하는 화려한 전시였다.

장소의 중요성은 그 역사성 때문에 생생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의 오래된 건물들이 우매한 관료들의 정책과 부동산업자의 이권과 맞물려 역사의 뒤결로 사라졌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남광주 역사

와 남구청의 붉은 벽돌청사와 근대에 축조한 학교 건물들, 계림동의 경양방죽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소실되었던 아픈 기억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현재 광주 비엔날레 본 전시관 건립안 제안의 하나로 광주에 남아있는 일신방직 공장 활용 제안은 매우 적절하며 소중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비엔날레관 주차장에 비엔날레 제2 전시관 건립 제안은 너무 단일하고 지극히 편협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두 개의 메인 전시관이 인접해 있으면 관람 동선에 변화가 없어 지루하다. 문스터와 카셀의 관람 동선은 하루에 일만 오천 보를 걷게 만든 것과 비교해 보라.

베니스의 바닷가를 따라 형성된 관람 동선 안에 카페와 레스토랑, 작은 갤러리, 기념품 가게들이 번창한 것은 자연스럽게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엔날레 제1 전시관과 방직 공장 전시관의 거리는 관람객이 산책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현대의 역사적 격동기를 함께 해온 일신방직 공장은 빛고를 광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수난의 역사는 신타래와도 같아서 수없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길진 생명력을 보여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있는 공간인 것이다.

'火'에 가장 취약한 계절... 각별한 주의 필요

발언대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



24절기 중 네번째 절기(節氣)인 춘분(春分)이 지났다. '명백한 봄', '마음이 설레는 절기'라는 뜻이 있으며, '낮과 밤 길이가 12시간으로 같아지는 시기'라는 다른 뜻도 있다. 즉, 봄과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춘분은 겨울이 지나고 새해 첫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로, '火'로부터 가장 취약하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근 5년(2018년~2022년) 봄철 기간동안 총 1154건의 화재로 인하여 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5년간 계절별 화재 건수 중 봄철 비율을 보면 28.2%, 계절별 화재 사망 건수에서도 34.3%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봄철 화재 절반 이상인 60.4%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요 원인은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담배꽂이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등이었고 화재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야외·도로 등이 53.3%, 주거시설이 33.7%를 차지했다.

특히 봄철은 연중 산불이 57%가 발생

하는데 그 원인은 강수량이 적은 특성과 다른 계절에 비해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한 시기이며, 고온현상으로 불이 쉽게 번지고 등산객들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은 가뭄이 심각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단계로 '火'에 더욱더 취약하다는 시기이다.

이에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봄철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선조들의 마음가짐처럼 항상 '火'라는 존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을 소중하게 보호했으면 한다.



기고 김덕룡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전남농촌 발전'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산업혁명 덕택에 인류 문명이 급변해 왔다. 1784년 증기기관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기계화), 1870년 전기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대량생산), 1969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지식 정보)과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바르 회장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발표했다.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이 휘몰아 쳤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햇빛 양,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가 가능하며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지능화된 농장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스마트팜과 농업 4차산업 관련 기술은 최신 기술이거나 목표로 하는 기술을 말하기도 한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현장 검증, 상용화 단계가 남아 있다. 하지만 AI나 로봇, 자율주행 등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뉴스에 현장에도 이미 적용 됐으리라 판단하는 듯 하다. 하지만 현장과 괴리감이 있으며 아직까지 농업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스마트팜 보급 실적은 1만1228ha로 그 중 시설원에 스마트팜은 6485ha에 그쳤다. 전체 온실 5만3239ha 중 12%에 불과하다.

농업의 스마트화와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대응하려는 농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 온실은 단동 비닐하우스에 0.5ha 미만인 82%로 영세하다. 고품 농업인도 많다. 스마트팜 전환을 위해 규모

화, 시설 개선과 정보통신 능력이 필요하지만 영세한 농업 규모와 여건상 어려운 과제다.

전남도는 상황을 인정하고 스마트 농업 보급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소형 단동하우스 규모 및 작목에 맞게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저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보급 사업이다. 온실 형태와 작물 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을 보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어 항목은 자동 개폐, 환기, 난방, 탄산가스 공급, 원격 관찰, 원격제어 등이다. 오픈소스형 제어기를 사용해 설치비용을 기존 대비 60~70%로 낮췄으며 제어알고리즘업그레이드가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8~2022년 22개 시군 100개소 264농가 79.76ha에 저가형 스마트팜을 보급했으며 올해도 19개 시군 25개소에 보급한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농가 온실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온실환경 관리, 시설 활용, 작물 재배교육, 컨설팅, A/S 등 스마트팜 활용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해 스마트팜 체험, 교육, 컨설팅 등 전남 스마트팜 보급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농업에서 로봇과 AI, 무인화는 필연적이다. 다만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술 개발 속도를 떠나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농업 여건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농업은 스마트해 되고 농촌은 매력있게 변해 세계로 뽐낼 수 있는 농도 전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전연가독 리플라이니 쇼퍼석 (이플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본관(1관)입구

본관(2관)입구

본관(3관)입구

본관(4관)입구

본관(5관)입구

본관(6관)입구

본관(7관)입구

본관(8관)입구

본관(9관)입구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사정! 신들의 분노
2관	스즈메의 문단속
3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플레인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4관	용남이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팔로우드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꼬마돼지 베이브의 바다 대모험
7관	모나리자와 블러드 문 / 포커페이스 / 킬
8관	소울메이트 / 파벨만스 / 더 퍼스트 슬램덩크
9관	소울메이트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